

크리스마스 선물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전 희 숙

저는 70세 된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 되겠네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예방 차원에서 심장검사를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때?” “아니 아프지도 않고 아무 증세도 없는데 검사는 무슨 검사를 받아요?” 저는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장모님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으니 가족력 때문이라도 검사는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몇 해 전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심장병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엄마...

남편의 계속된 권유로 저는 그때 살고 있던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나이도 많고, 지금의 오래 전의 일이라 검사의 이름들이 잘 기억될지 모르겠네요. 삼장관련 혈액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24시간 활동성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등. 이 외에도 몇 가지의 검사를 더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맨 처음 24시간 활동성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수하게 만들어진 기록장치를 부착하고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심전도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련한 아줌마인지라, ‘심장에 아무런 증세도 느끼지 않는데 번거롭고 비용까지 들어가며 꼭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몇몇 검사를 마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부하검사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검사를 저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제가 부정맥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정맥이... 뭐죠?” 그때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전 단순히 심장병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병명은 잘 몰랐을 뿐 더러, 부정맥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정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심장의 근육 수축을 위해서는 전기가 발생해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데요. 혹시 검사가 잘 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진이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의사 선생님께서는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정맥이라는 병은 약도 없고, 더 심해지면 가슴에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뜩 들면서 병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아닐 거야, 다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분명 아닐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습잖은 실력으로 부정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정맥은 무엇인가?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당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명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부정맥은 제가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쓰러지면 뇌졸중이 될 수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기막힌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꽤나 유명했던 한 야구선수도 경기 도중 부정맥으로 쓰러져 몇 년째 식물인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무서운 병이 내게 올 줄이야.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제 모습이 상상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치료법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희망은 항상 제게 있었습니다. 부정맥 명의로 알려진 서울 모 대학병원에 교수님께 예약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보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런 증세도 느끼지 않았기에 다급한 마음은 아니었음에도, 매일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부정맥이라는 병은 자가증상이 없는 걸까? 이러다가 그냥 쓰러지는 병인가?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는 것인가?

불안한 마음을 가져서인지 예약을 하고 며칠이 지난 뒤부터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다.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픈 단순한 통증이라면 설명이 좀 더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에게 나타난 증상은 아프다기 보다는 괴롭다는 말이 더 적합했습니다. 1분에 60회 이상 뛰어야 한다는 심장은, 저의 경우 60번 내외로 뛰었고, 그 괴로운 발작의 느낌은 수시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가려면 열흘이나 남았는데…’

그 즈음부터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쓰러진다면 제발 그 자리에서 죽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그 자리에서 죽게 해주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신론자인 저도 다급하니 하느님을 찾게 되더군요. 제 하루 일과는 간절한 기도와 1분에 40번 정도 밖에 뛰지 않는 제 맥박을 재어보는 일이 다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쓰러졌을 때 아무도 주변에 없어야 구조되지 않고, 그래야 식물인간이나 뇌졸중환자로 남지 않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숨만 붙여 살아남아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작업장이 있는 충청도에, 딸들은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저 혼자만 지내고 있던 상황이라 그런 미련한 생각을 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날의 삶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못해준 것에 대한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마주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약일 전에 남편이 집에 돌아와 입술이 다 부르르고, 쾡해진 눈으로 초점 없이 먼 곳만 바라보던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먼저 짐을 싸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남편은 저보다 더 힘든 얼굴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서울 병원으로 향했고, 바로 입원절차를 밟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수술실로 향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많이 봤던 동그란 형광등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실에만 들어가면 지금의 이 괴로움은 사라지겠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처음 검사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올게. 마취하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고 자고 나면 금방일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수술 전에 전기가 새는 곳을 찾기 위해서는 마취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 전 남편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기가 새는 곳을 찾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 무섭고, 춥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맥성 부정맥. 저의 병명이었습니다. 사타구니 대퇴정맥을 통해 도자를 심장까지 밀어 넣어 전기가 새는 곳을 찾아 시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실에서의 고통의 시간은 여러 의료진들과 교수님 덕택에 무사히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술실을 나온 직후, 저는 제 손을 잡아주던 딸의 손을 뿌리치고 남편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마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았던 탓이겠지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딸은 “엄마는 나는 필요 없다고, 아빠만 찾으셨잖아요.”라고 투덜대곤 합니다.

시술 이틀 후, 교수님께서 회진 중에 아주 성공적이라며 회복도 잘 되고 있는 중이니 내일은 퇴원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술 후 확실히 전보다 괴로운 증세가 많이 좋아진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라는 말씀도 덧붙이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저의 시술을 담당해주셨던 교수님과 의료진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